가뎡부인

가평
평론

누구의 죄인가?

朗山人

◇조선일보 칠일석간을 보신이는 누구나다「재관장」을 보렷번한 살아범의 소부는 라하는 괴사에 눈이뛰엿슬줄안다 참혹한일이 만흔세상인줄은 알지마는 그와가티 참혹한일이 잇슬이라고야지 생각하는 이는 만티못할것이다 십구세된 귀머은 부인은 두살먹은아들과 한살먹은아들을 압흐로만고 뒤도업고 일하지아니하면 아니될쳐디에잇섯다 그러나 집에는먹을것이 업시자괴가 죽게됨을하야 남편과 두아들과 자긔네사람의 생계를 유지하여가지 아니하면아니되게되엿섯다 그는 자긔가 자긔의 목숨을 은허버리려고 한쎄가 한두번이 아니엿섯다 하나 모진목숨 죽기도어렵거니와 자긔가죽으면 두아들과 남편은 엇지하나? 이러한일을생각할쎄에 그는 자살할수도업섯다 죽고저하야 죽을수잇는 그사람은오히려 행복이 아니엿겟섯느냐? 그러나 죽을수도업는 그사람의 고통을 아는이가얼마나되랴?

◇한번 뻬번생각하여보게는 생각만하기에도 극악한 세상에도 극악한 지엇다 자긔의 한살먹은 남편을 구하고 자긔의 아들을 구하고 자긔자신을 구하는 길이 엇섯다 그의운 얼마나 잡혓스며 또그는얼마나 많이 원망하엿스며 사이세상이며! 십구세의 가 자긔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어갈수업는 이세상! 이것을우리는 엇더케 하야할가? 우리는 이십구세씨를위하고 나우는것만가지고 와가튼어머니들을 위하야 만히생각하지 아니되겟다 이것이누구인가?

무사히마친
소요산탐승

逍遙山婦人探勝團隨行記

만호장안의 귀부인숙녀가 손곱아기다리든 소요산 부인탐승단(逍遙山婦人探勝團)은 예뎡과가티 경성려행안내사(京城旅行案內社) 양재긔(梁在璣)씨와 조선 녀자청년회(朝鮮女子靑年會)신알벗트씨와 본사사원의 안내로 칠일오전 아홉시에 청량리역(淸凉里驛)을 써나 데이금강(第二金剛)의 아름다운 칭호를듯는 만추의소요산 경개를탐승하고 데일너는 다섯시삼십분에 데이대는여덟시 오십분에무사히도라왓다

려행안내 사에서우리에게 난회준 경성신명소(京城新名所)의 그림엽서를자미잇게 드려다보앗다 어언간 긔차가동누천역에 도착되니 경첩한차림차림을한 우리일행은 나는듯뛰는듯 탄탄대로를 화살가티 다러나서 소요산어구에 드러섯다 긔암괴석(奇岩怪石)이 전후좌우로 즐비히 느러섯고 첩첩히싸힌 단풍가지는 바야흐로 무르녹아 쏫세계를 일우엇다 우불우불날마정의 놉고나즌산물길을 죽장마혜로드리서니 유곡(幽谷)은 적막하야 뭇새의우름조차 드를수업고다만

느진가을 서리찬바람도 려이녹어지고일긔가매우다뜻하야오래간만에소창할긔회를엇은 여러부인들의마음을더욱히흡족하게하엿다 일행은경원선렬차에 싹지어 자리를정한후 차창을열고 일망무제한가을벌판의 경치를구경하며 평화란만한 웃슴과 이야기의 쏫이되엿다 혹은늑우리오다버니대을 모시고올건는혹은몃해동안버르든 소요산을오날이야 가게되는구나 혹은늑나는새벽네시부터 니러나서 시계만치어다 보앗다오는하고자긔들의고대한바를

원효폭포 (元曉瀑布)맑은물줄기가 큰바위 적은돌틈으로 한가히 감도라갈뿐이다아! 태평한 텬디 극락의정토(淨土) 우리의몸과 맘은풍진세파를 써나 색숫한딴나라를 차즌것가탓다 넘으면또고개 건너면또물열마큼더듬어서소요사(逍遙寺)를 차저가니보산대사(寶山大師)는 합장배례하고우리를환영하야 주며자긔가거하는원효암(元曉庵)으로인도하엿다 이곳은 이제로부터 이천여년전에 원효대사가 백일동안 산천긔도를드리고 마츰내득도하야 어든집터이니변천과란리를수업시겨것다한다일행은이곳에

뎜심을식 히고얼마큼다리를쉬인후 독립암(獨立岩)、약수(藥水)로향하엿다 크고놉흔그바위ㅣ우흐로는 쏙써질는듯하야하늘을 뚤흘듯이 날카롭게보히고 아레로는 십여쳑거리를땅에두고 비스듬이누엇다 그곳에는독립암의 생긴모양이마치 늙은중이 쏙크리고 안즌듯하다고 노장바위라 일컷는다한다 그바위아레로 십여쳑 괴여드러가면 원효의굴이잇고 그굴속에는 약수가 돌틈에서 사시장천흐른다

숨기어서 말씀을드르니 그들이얼마나 집안에 가티워잇서 자연의경색을그리워 하엿는지 이를미두워능히 상즁할수가 잇섯다 덜덜굴리는 긔차가어느듯 의정부역(議政府驛)을 다다르니 수만흔승객중에 우리일행을찻는 부인이잇섯다「나는몃칠 전부터 신문을보고 포천(抱川)서오날새벽에 사십리를 거러나 왓소 우리일행이 일곱명인데 당신들과가티 소요산을 구경하랴고 왓소이다」─ 긔자는 그들을 영접하야 우리와자리를 함쇠하고 단원들은 조급한마음으로 목뎍디를 기다리며

약수를써 마시고령산전(靈山殿)、산령각(山靈閣)、만월보전(滿月寶殿)、독성전(獨聖殿)을차레로구경하엿다 일행은원효암으로다시도라와뎜심을마치고십인십색으로가지고간 실과와 과자등속을 공산(共產)하야 난호아 먹으며 흥미잇는 담화회가 열리엿섯다 긔묘한 산수를참아 노코니러서기어렵것만은 부득이한 사정이 잇는사람은 하릴업시 인간세계를 먼저찻게되엿고 남아지사람은소요산절정(絶頂)을탐승한후 원효폭포아레서

가재잡이 를시작하엿다 가재를 가장만히잡는 부인으로 선생을 봉하니 청진동(淸進洞) 배진성(裵振聲)녀사가피선되엿다 원효폭포의 세차게써여나려오는물결— 그야말로 류직하삼천쳑(飛流直下三千尺)의시은하락구텬(疑是銀河落九天)」의글귀를 련상치하게되엿섯다 데이대는 소요산을 선봉으로

조흔「잠종」을구하랴면 지금부터「준비」가필요 (二)

李晟煥

三、조흔잠종은 엇던것

◇그러면 조흔잠종을 구하는데에 필요한지식으로 이되는 조건을 알어보아야 겟습니까 다시말하면 조흔잠종을 조타고하느냐 그러면 조흔잠종을 알어야 되겟습니다 아래와가티 대한 설명을 합시다

◇잠종선택에 두가지 구별이 잇습니다 하나는품종뎍(品種的)으로보아 이잠종이래야 조타고 하는것과 또한하나는 가튼품종에서도 건강뎍(健康的)가티(價値)로보아서 이잠종이래야되겟

金剛禮讚 (五)

白雲香徒

五十三佛

◇그러나 楡岾寺에서 아모것보담도 소중하게 아는것은 실상이 뎔開創의 緣起를지은 五十三佛입니다 高麗閔漬의 記에 떠神怪한이약이를傳하얏습니다 舍衛城中九億家中의 미처佛을親見치못한 三億家가 一佛의 滅度하신뒤에 悲嘆하기를마지아니하매 文殊菩薩이 그럴것아니라

처음神龍이 月氏國으로실코가매 國王이 집히 敬重하야 곳一殿을 짓고 奉安하얏스나 殿이 홀연불에 타고 王이 곳 再營코자한즉 佛이 王에 現夢하기를 내가 此土에 멈을 고저 아니하니 王은 挽留치말라 하심으로 王이 驚惕하야 다시 舊鐘에 담아서 바다에 띄우고 立誓하기를 어대든지 가시는데를 좃차가서 護法善神으로 항상 擁護하고 잇겟다 하얏드랍니다

멍텅구리 가뎡생활

(16) 쏠쏠의병

(一)애기도귀업지만 이틀밤을새고는 견듸지못하야 (二)간호부를청하려갓다 미인을맛나얼이한치나 버러저 (三)옥매는셩이나서 간호부를돌녀보내고 (四)내외말다툼 이낫다

有志의熱議으로 維持하든英實校

警察이後援會를突然解散

平北江界英實中學校는經費困難으로一時廢校의悲運을當하게되얏슴으로當地有志諸氏의發起로그後援會를組織하고會員一人에게一圓以上의會費를바더每月一百五十餘圓의會費로經費를充用하야오든바去四日午後一時에江界警察로부터同後援會幹部金鍾璉、姜炳柱、金華鉉三氏를召喚하야英實校後援會는寄附金募集取締規則違反이라는理由로解散을命하엿슴으로英實校는將來維持方針이漠然한바一般의同情이잇기만苦待한다더라(江界)

五山校에同情

定州五山校高等普通學校에서寄宿舍建築寄附金을募集한다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今般宣川人士로부터如左한同情이또잇다더라

五十圓金重鎬　三十圓金文贊
二十圓玄聖獻　朴奎采　李鍾星　桂炳瑞　田明鎬　十五圓
金泰熙　十圓朴玉鉉　朴昇祚
洪錫鳳　田宅正　金德謙　金
允晶　田宅奎　金贊河　金昌
河　玄俊觀　田孝京　金晟獻
玄行觀　金景治　金德升　金
基浩　金得河　韓錫晉　桂重
植　金亨涉　金麗道　田益明
桂根植　車元慶　金基俊　朴
元祚　金景獻　朴治光
定州에서도
十五圓金坤根　李基洙　十圓
金佳燾　桂明淳　金賓錫　金
洙粲

寺岩場新設과 松坡의反對計劃

廣州郡中垈面松坡中央靑年會及同面文井里廣明靑年會發起로來十日에中垈面民大會를開催할豫定이라는데其內容을探聞한즉九川面岩寺里有志諸氏의發起로同處에市場을新設할計劃이라는바該處에市場許可가되면中垈面松坡市場에影響이過多할뿐아니라同面罹災民生活上큰問題로兩會에서發起하야本月十日에面民大會를開催하고九川面市場許可에反對運動討議가有하리라더라(松坡)

金靑委員會

事務分擔及決議

全北金堤靑年會에서는十月二十五日邑內西巷里趙紀勳氏家에서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와如히事務를分擔하고同十時에閉會하엿다더라

一、總務部李奉者　趙周安　敎養部金達相　張準錫　體育部趙紀行　鄭錫奉　經理部金鳳觀　趙宗泰

一、아즉것開學치못하엿던勞働夜學은十一月中에開學하기로하되一切準備를敎養部委員長에게一任할것

一、金堤體育會에서本會에承諾도업시同會主催의南鮮個人庭球大會에後援云云을某紙上에記한것은正式으로公文을發付할에도何等의回答이업고다시抗議書를提出하엿스나그回答을보아對抗策을講究할事

錦山、茂朱聯合 棉作品評會

十日錦山乾繭場에서

全北錦山、茂朱兩郡의聯合으로來十日에錦山乾繭場에서棉作組合品評會를開催하리라는데出品件數十五點에當選이十點이라하며當日에亘하야珍山　秋富　富利　濟原四個公立普通學校에서出品한데에對하야는別로等級을定里하야一等三十圓二等二十三等十圓의賞金을授與하리라하며全北棉作組合聯合會에서棉作指定里로錦山郡錦城面下栢里에(金堤)

道路竣工紀念

橫城、平昌間

江原橫城郡에서는昨年春期부터本郡屯內面을通하야平昌郡蓬坪間外지等外道路工事에郡當局과四萬七千餘民衆의盡力으로工費貳萬八千五百餘圓을支出하야今年十月初旬頃에完工되얏는대本郡에서는其道路에對하야竣工記念으로十月三十一日로本月一日外지二日間竣工式을擧行하고餘興으로脚戱及自轉車運動等이잇섯다더라(橫城)

慶山水利起工

去七日에起工式擧行

慶山郡邑內水利組合起工式을지난七日에同郡邑內에서盛大히擧行하얏다는데當日參席한人員은無慮數千名이엇스며餘興으로數種의競技도잇섯다더라

『시온』村巡映團

大邱에서大盛況으로

永川『시온』村同人들의主催의白鶴學院을爲한活動寫眞隊는去五日에大邱萬鏡館에서開催한바當日에觀衆은無慮千餘名의大盛況을이루엇스며各大士로부터同情金도잇섯다는데氏名과金額은아

慶州唯一의育英機關 啓南校의新計劃

校室建築과幼稚園의創設

一般의同情이잇서야될일

距今十五年前舊韓國時代에一般이學校를設立한다면極力으로反對하든터인데慶州의有志幾人이萬難을不顧하고純全히朝鮮人의힘으로私立啓南學校를創立하얏다同校는本來財源이不足한사람들의設立한것이라十餘年間이나形言할수업는困境에陷하야這間에累次廢止說이傳播되얏스나學校當局者들은過去에慶州의多數育英事業에貢獻도多大하거니와더욱將來의多數한兒童을爲하야는慶州에唯一한啓南學校를廢止할수업다하야僅僅히維持하야오던중不幸히去夏에同校校舍의一部인一二學年校室이顚覆되야形體도찻지못하게되엿슴으로夏節에는그럭저럭露天에서僅僅히敎授를하얏스나발서압흐로嚴冬雪寒은迫頭하얏스나學生들을收容할校室이업서서廢校치아니하면안될悲慘한運命에이르럿슴으로一般社會의同情을바랄뿐이라는데日前同校職員會에서는새로히校室을建築하는同時에幼稚園外지設立하기로하얏다는대그러나此建築費五千圓을要한다는바此金額은一般社會에同情을求한다하며더욱이慶州地方의富豪諸氏의만흔同情이잇기를바란다더라(慶州)

關東少年聯盟

參加에注意할點

十月二十三日平康少年斥候隊外몃團體代表委員이鐵原에모히여關東少年聯盟을發起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이제同準備會에서는去一日에二十一郡에잇는各少年團體에參加申請書를發送하얏다는데그申請書를밧지못한少

年團體가잇스면樣式은任意로하고左記에依하야곳申請하기를바란다더라(鐵原)

一、參加資格　關東에位置를둔少年團體의代表者

一、申請場所　鐵原少年會
一、申請期日　十一月十五日

但一個團體에二人外지
一、參加金　一人에五十錢式
一、大會日時　今廾日午前十時
一、大會場所　鐵原靑年會館

女子討論盛況

旌善幼稚園慈母會主催로去三日同園內에七十餘名의女子가모혀봄(春)이조흐나가을(秋)이조흐냐라는問題로金玉淵女史司會下에서討論會를開催하엿는데演士는大槪家庭에기피숨어잇던女子들이라하며豫想以上의熱辯을吐하야大盛況을일우엇다더라(旌善)

興農殖產稧

平南江西郡江西面甑里에去六日當地有志鄭基鏞、崔致敬、禹章烈、朴弘植等諸氏의發起로每月二十錢式貯金하야一般稧員의勤儉貯蓄의美風養成과互相救濟의良俗助長과一般農產業에關한講話會開催와稧員又는其家族이疾病或은死亡한時는慰吊及金錢貸付等의目的으로地方의模範的興農殖產稧를組織하엿다는데稧員은百餘名에達하얏다더라(江西)

元山印工親睦

會名及會體變更

元山印刷職工親睦會는同組合의後身으로客年春期에創立한것인데그간여러가지事情으로微微不振이엇던바去二日午後七時廳內路石洞姜昌祿氏宅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規約을修定하야從來의會長制를執行委員制로親睦會를組合으로改定한後執行委員十二人을選定하고將來進行方法을討議하얏는데被選된委員은朴昌啟　崔志寬　洪成九　金國禧　金萬煥　康羅鎬　高壽傳　李啓心

羅普學藝展覽

全南羅州公立普通學校內에서去一日부터三日間羅州敎育會主催로學藝展覽會를開催하엿는데朝鮮은勿論이오日本各處에서도만흔學藝品이出品되야五千點의成績品이陳列되엿스며雲集한觀覽人數도七千名에達하엿슴으로會場은大騷雜中이엇는데出品된成績品中에는羅州木浦光州大邱며本東京等의各學校出品이가장良好하얏다더라(羅州)

仁同靑年復興

慶北漆谷郡仁同靑年會는再昨年秋創立으로三個年間何等의事業이업시有耶無耶에잇든中近日同會張志浩尹滋鎬外諸氏의活動으로革新에努力中이라더라(倭館)

江界電燈 또全夜停電

江界電氣株式會社는創立한지不過一週年에停電이頻繁하여地方의不平이沸騰하다함은이미累次報道한바이어니와去五日에또全夜停電이되엿슴으로一般需用家의不便이不少함으로如此不完全한電氣는도로혀업스니만못하다하야非難이藉藉하다더라(江界)

蔚山의 四校聯合展覽

慶南蔚山에서는學校兒童의農業趣味를喚起하고實業思想을涵養하는同時에地方農業의改良에는多大한貢獻을주기爲하야蔚山公立普通學校尋常高等小學校蔚城公普校大峴公普校等의四校聯合의農產物展覽會를蔚山公立普通學校大講堂에서來十五十六日兩日間開催할터이라는데各校兒童의家庭은勿論이오一般農家에서도生產品　其他參考品의出品을願하고優良品은審查하야一二三四等外지授賞도할터이라는데特히一般縱覽에供키爲하야四校兒童의各種成績品及學校備品中機械標本掛圖等外지陳列한다더라(蔚山)

江原靑聯 委員會決議

江原道靑年聯盟準備會에서는去一日準備事務所인平康、斧壤青年會館에서同會常務委員會를열고左와如한決議를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創立大會의時日(十一月十五日)은準備奔忙으로因하야

運動界

脚戱一等朴俊喆

全北金堤에서開催되는四郡(全州、益山、沃溝、金堤)聯合畜產品評會에金堤畜產組合의主催로脚戱大會를開催한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지난二十七日부터三日繼續開會하엿던바最後의勝利는金堤郡鍊坎面鍊坎里朴俊喆君인데一等賞畜牛一頭(五十圓)價格를與하엿다고(金堤)

信聖軍大勝

宣川信聖學校運動場에서開한바同四時頃에六對零으로信聖軍이大勝하다고(宣川)

雲暗團出征

鐵山雲暗團今番新義州國境蹴球大會에出征코저選手들은去六日特急列車

◇金堤公普運動

◇莞島藥山運動

◇橫城公普運動